



봉우 컬럼

세상으로 나가라

버스정류장은 오래 머무르는 곳이 아니다. 버스가 오면 떠나야 한다. 학교도 계속 머무르는 곳이 아니다. 배웠으면 더 깊은 학문 속으로 가든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교회 역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나가서 세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 내에서 싸우고 행세하려고 한다. 교회 내에서 어깨찌름이나 하고, 교회 내에서 당파를 짓고, 직분이 완장인 양 휘두르려고 한다. 난센스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앞에서 큰소리쳐야 한다. 소금은 썩어가는 곳에 처야 하는 것이고, 빛은 어두운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었으면 세상에 나가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옳은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요, 현주소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물었더니, 싸움하는 곳이라고 한다. 가슴을 칠 일이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자들은 각각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투쟁한다고 한다. 의(義)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교회 문제가 매스컴에 떠돌고, 교회를 부수고, 재판장에서 시비를 가르는 형편인데...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는 성전이 아닌 싸움판으로 비치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 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빛이 되어야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더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방부제가 될 수 있다.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내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흑여 상대에게 문제가 보여도 기도하고, 감싸고, 잘 인도해야 그것이 진정 예수를 위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3:12-14).

찬송과 기도가 결혼하면 축복을 낳는다

집회 마지막 날, 아카(Akha)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은 도시락을 만들어 집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물과 함께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도시락을 나눠주고 난 뒤 삼삼오오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조의수 장로는 '오늘도 보약을 많이 먹었다'고 기뻐했다. 주는 기쁨은 맞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다.

저녁 7시가 되자 집회장 문이 열리고 인파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안내위원들은 장내를 정리하며 의자를 앞으로 당겨 자리를 더 확보하고는 의자를 계속해서 깔았다. 찬송이 시작되자 집회장은 입주의 여지없이 인파로 가득했다. 목사님은 아제 목사의 안내로 입장하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특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기도가 없으면 반석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결혼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Bless be the name'을 함께 힘차게 불렀다. 그들의 적극적이고 뜨거운 찬양을 보며 소수민족 아카인들의 순수한 신앙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며 '예수'를 세 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들은 금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분명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쟁터 같은 장면이 잦아들 때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은 우리 영혼을 더욱 성령충만으로 고양시켜준다.

결국 목사님은 병자들을 단상으로 불러 올려 안수하시기 시작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안수를 받는 중에 한 소녀가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의 흥분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목사님은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수없는 시간을 기도하다 나오는데 귀신 한 마리도 요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끓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안



태국 치앙라이 집회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카족 성도들

서 고아원생들의 특송부터 함께 하했는데, 특송을 마치고 퇴장하는 고아원생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해주었다. 그들의 찬양은 매우 뜨거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다.

목사님은 회중에게 먼저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하셨다.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기도훈련이 부족하다 느끼신 목사님은 찬송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셨다.

"바늘만 있고 실이 없으면 옷을 꿰맬 수 없습니다. 실만 있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바늘과 실이 하나가 되어야 터진 옷을 꿰맬 수 있는 것처럼, 찬송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찬송 역시 꼭조 있는 기도입니

간혹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보였지만, 대부분은 열성적으로 찬양에 몰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집회를 경험하며 역사의 공통점을 보면, 통성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곤 했다. 물론 찬양 중에도, 집회 영상을 보는 중에도, 설교 중에도 역사하는 경우는 있다. 이는 경험적 통계를 말하는 것이다. 악한 영들이 어떤 조건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지 그동안 보아온 경험을 통계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라는 것이다.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며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 이름 앞에 떠나는 전

타까울 수가 없다.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제 목사 한 사람만 변해도 이번 집회는 대성공이라고 기뻐하셨다. "아제 목사가 아카를 넘어 태국, 동남아시아로 비전을 넓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게 다 우리의 상이다."

아카예수중심교회와 태국 치앙라이 집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반드시 태국 땅에 꽃 피우도록 합심으로 기도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춘계산상집회

일자: 4월 1(월)~ 4일(목),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호텔예약: 3월 26일(화) 오전 10시 정각 홈페이지(www.jcc.tv),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4:17~25)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이다

믿음이 뭐니까?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즉 믿음은 바라는 것, 즉 마음속에 그린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롬4:18)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눅18:27).

생각의 속도를 내려 생각의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이 쉽게 이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보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었으니 사실 죽을 준비할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의 못별을 보게 하십니다. 별 하나 달랑 떠 있는 하늘이 아니라 총총히 박혀 셀 수 없는 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4:18~22). 그래서 결국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는지 압니까? ‘경수가 끝난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아들인들 못 살리시겠느냐’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표입니다. 만약 일찍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더라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

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못별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땅만 내려다보지 말고, 내 형편과 사정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못별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롬4:23~24).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총회장 이초석 목사

것이니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즉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은 부모가 대줘도 공부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듯 말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명,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시각의 문제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10명은 자신을 바라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안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찌 가시나무를 심고 무화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된다’는 생각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갈라질 것이라 믿고 지팡이를 내미니 하나님이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일곱 바퀴 돌면 무너진다는 바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돌았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으니 네가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못합니까? 생각만 바꾸라는데 그것

도 못합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입으로 넓게 열라 내게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전제하셨느냐면,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도 못 믿으니까, 하도 입을 작게 벌리니까 ‘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네 입을 벌릴 수 있는 만큼, 입이 찢어지도록 벌려봐라. 내가 채워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살 방도를 청했을 때 엘리사는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한 후, 문을 닫고 들어가 기름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기름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왕 빌리는 거 그 마을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렸으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왕 생각하는 거, 세

금 내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나 미모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마음껏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전들은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껏 생각을 크게, 넓게 한 사람들이었기에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이 반드시 금의환향하리라 생각을 가지자 하나님이 야곱으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못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 생각을 가지니까 불가능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고(마17:20),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막10:25).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막10:27). 그런데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의 생각으로 삼니까? 왜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습니까?

심은대로 거둔다 어떤 생각을 심었는가

이제 메뚜기 사상을 버리고 하늘의 못별을 바라다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는 말씀은 먼저 땅에서 풀면 풀리고, 먼저 땅에서 매면 매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생각이 ‘할 수 있다’ 할 때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와 만인을 들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못한다’ 하고 스스로 한계를 그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한계를 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믿음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도 바꿉니다. 태의 문을 닫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죽을 테니 유언하랴던 히스기야가 해를 거꾸로 돌리는 기적 속에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다 끌어버린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살렸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용달샘 ::

하나님의 사람 요셉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창 41:15~16).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부자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으며 채색옷을 입고 세상 물정 모른 채 마냥 꿈에 부풀어있던 어린 소년이 항상 믿고 따랐던 형들의 시기, 질투에 희생되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구덩이에 던져진 후 살려고 몸부림치던 시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 낮은 이국땅에서 보디발의 시종으로 일을 시작하기까지 요셉이 당한 공포와 절망감은 얼마나 극심했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아마 요셉은 마음을 다잡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견고히 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숨죽여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꿈을 환기시키시며 소망과 위로를 주셨으리라.

그렇게 맘 잡고 열심히 살다보니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이젠 좀 살만해졌다 했는데, 이번엔 성폭행, 강간, 그야말로 가장 파렴치한 죄목으로 옥에 갇힌다.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뿜 일 아닌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할 수 있나’ 하는 멋진 믿음을 보였는데

도 말이다. 이 정도면 솔직히 여느 사람 같으면 자살하기 딱 좋은 조건 아닌가? 그런데 요셉이 놀라운 점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노예에다 나중엔 강간범까지, 사실 그 정도 인간이면 개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요셉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술관장, 떡관장 같은 고위공직자, 비록 지금은 옥에 갇혔지만 출소하면 고위직으로 복직하게 될 인물들이 그들의 고민을 요셉에게 토로하고 자문을 구한다. 나아가 애굽 최고의 통치자 바로조차 강간범 요셉을 불러 꿈의 해석을 부탁하지 않던가? “하이고, 내 처지가 지금 이 마당이니 내 억울한 사정이나 들어주소!”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울고불고할 처지인 요셉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까지 해주는 장면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다.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 나는 하나님 영광이나 가리고 있는 놈이야.”하며 비관하고 있다면 요셉을 보고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할 삶의 자세라 믿는다.

Henry Han

:: 세상을 보는 창 ::

팬(fan)인가, 제자인가?

윌리엄 보든(William Whiting Borden, 1887~1913)은 1800년대 말 낙농회사의 백만장자인 보든가의 상속자였다. 예일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한 후 백만장자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한 그는 삶의 부요함을 포기한 채 이슬람 선교를 위해 먼 길을 떠났고, 25세의 나이에 척수뇌막염에 걸려 카이로에서 세상을 떠났다. 선교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예일 대학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윌리엄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그 이유는 윌리엄의 성경책에 있었다. “남김없이(No Reserves), 후퇴 없이(No Retreats), 후회 없이(No Regrets)!”라는 3개의 문장으로 제자의 길을 선포했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 예수의 제자란 윌리엄처럼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팬은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는다. 물론 팬도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경기장에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일 뿐,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예수님은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청중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소년의 도식락으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자 예수님의 열광적인 팬이 되어버린다. 다음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제한 뷔페 식사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 6:26). 이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고 있는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함인지... 팬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팬들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팬에서 제자로 거듭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듯,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사람인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나사로와 같이 살지 말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매일 파티로 즐기며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사는, 심지어 몸도 부실한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부자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청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 낙원에 간 것일까요? No!

하나님은 우리가 나사로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민 위에 뛰어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없어서 빌리러 다니고 아파서 골골대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물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된 자에게 그것들은 없느니만 못하지만, 돈이 있고, 건강해서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남에게 주며 살아야 합니다.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지는 낙원에 갔지만 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건강으로 살아 있을 동안에 상도 쌓고 면류관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시다.

나사로의 믿음은 본받으나 나사로와 같은 삶은 살지 마시다. 예수중심편집실



:: 삶이 있는 이야기 ::

특별한 신뢰

발달장애아를 30년 넘게 키워온 권사님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본인처럼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보통 중병을 앓거나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엄마를 잃은 아이는 마땅히 돌볼 사람이 없어 보육원으로 보내지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점점 증세가 심해지다가 몇 년이 못 되어 죽는 아이도 있다고 한다. 말로 표현 못하지만 엄마를 상실한 극심한 고통 때문일 것이라고 하셨다. 담담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지만 그 고된 삶과 깊은 슬픔에 마땅히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시는지 끝없는 의문이 들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신뢰하는 자에게 말졌다.” 사랑이라는 말쑤에 모든 의문이 사라졌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연약한 자녀에게는 눈길, 손길 한 번씩 더 가는 법이다. 하나님은 도움이 손길이 더 필요한 자녀들에게 더 각

별하시다. 과부와 고아를 늘 챙기시는 이유도 그들을 특별히 살피시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기고자 하신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하는 자녀만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는 없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

주변엔 장애아뿐 아니라 누군가를 힘들게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엔 짙어진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다. 의학적, 생물학적, 환경적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결국은 원망과 죄책감으로 돌아온다. 모든 의문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 말은 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그만큼 그를 신뢰하시는 것이다. 맡겨주신 하나님이 이겨낼 힘도 주실 거라 믿는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된 슬픔의 기도를 기쁨에 찬 감사의 기도로 늘 변화시켜 주신다 (시30:11~12).

이호은 사모

은혜가 머무는 자리

떡볶이를 먹으며 목이 뎀 적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식은 떡볶이입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네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어디인지 탐색하는 것일 정도로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돌아다니며 떡볶이를 맛 봐야 했지만, 요즘은 검색만으로 금방 맛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편해졌습니다. 이사를 하고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블로그에 동네 맛집이라고 소문난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떡볶이 포장을 주문하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있을 때, 낯익은 멜로디와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특별하게도 그 분식집은 배경음악으로 찬양을 틀어놓았던 것입니다. 가사 없이 멜로디만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작게 틀어놓은 것도 아니라 누구든지 분명하게 ‘하나님’, ‘예수’란 단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먹었는데, 말랑말랑 밀떡에 적당히 매콤 달달한,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주 그 분식집에 들러서 포장해가곤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때는 헛걸음할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9시까지 장사한다고 하셨기에 일찍 문을 닫는지

몰랐거든요. 어쩌다 재료가 빨리 떨어졌겠거니 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가보면 또 문이 닫혀 있고..., 그렇게 몇 주를 허탕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은 일찍 장사를 접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헛걸음 한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

다. 한번은 평일 오후였음에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생각하며 신나게 달려왔는데 또 헛걸음을...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게 문에 붙여진 안내문에 단기선교를 떠났다는 글을 보고, 저는 그 가게 앞에서 그들의 믿음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8월 첫 주였거든요.

어느 날은 가게 안에 들어가서 즉석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니 수익의 10%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인다고 써놓았습니다. 이쯤 되니깐, 이곳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볶이가 만들어져가는 동안 찬양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찬양

중에 어떤 한 가사가 마음에 꽂힌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인 내외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적당한 볼륨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맛있는 떡볶이와 튀김을 준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으니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에 위로가 되면서 울컥했습니다. 부부의 새벽 기도

와 매 주일을 온전히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곳에 머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떡볶이를 먹다 목이 뎀 수밖에요. 저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청하옵기는 제게 은혜를 머물게 하시려거든 은혜의 반경을 더욱 넓혀주셔서 제가 있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을 얻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박영신 성도
rubyday0@naver.com

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건만 무조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작정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쁨진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영벌의 지옥으로 갈 것인가?’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약식동원, 황사에는 도라지와 황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건강 관리를 가정에서 해야 할까? 마스크만 써도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직경 10 μ m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며, 이런 미세먼지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의 호흡기관을 통해 들어가 폐 속으로 침투해서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병을 막아내는 힘인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약하게 만든다.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μ m 이하의 먼지이다.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0 μ g/m³ 증가하면 사망 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μ g/m³ 증가하면

사망 발생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기형아 출산율이 16% 높아지며, 폐암 발생률도 22% 증가하는 것으로 영국 의학전문지에서 보고했다.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의 문을 닫아서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충분한 습기 유지와 공기청정기를 켜주는 것이 좋다.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세탁하여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도라지는 길경(桔梗)이라는 약초명이 있으며, 반찬으로도 종종 먹을 뿐만 아니라 감기 걸릴 때 도라지 차를 자주 섭취하기도 한다. 도라지는 폐(肺)로 가는 약초로서 폐와 기관지의 가래를 없애주며 목이 붓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복용할 수 있는 약초이며 음식이다. 독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먹거나 차로 달여 복용하여도 문제

가 없으며, 성질이 조금은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체질인 경우에는 황기(黃耆)와 함께 차로 마시면 문제가 없다. 황기(黃耆)는 삼계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약초로서, 따뜻하고 독성이 없다. 기운을 나게 하며 땀을 멎게 하고 몸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피부재생에도 도움이 된다. 폐(肺)와 비(脾), 즉 소화기 쪽으로 가는 약초이다. 두 가지 모두 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도라지와 황기를 각각 하루에 4~10g 정도를 20분 정도 따뜻한 물로 우려서 꿀을 넣고 차처럼 마시면 요즘과 같은 황사로 인하여 폐(肺)에 쌓이는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또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일상 속의 음식이며 약초라고 볼 수 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칭찬받는 교회와 나

얼마 전 대학로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보았다. 처음 이 뮤지컬을 찾아보았을 때 어떤 의무감에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뮤지컬을 보는 내내 눈이 툭툭 부을 정도로 울고 말았다. 그 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대방교육관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갔다. 줄거리는 이랬다. 요한계시록 2~3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토대로 보여주는 극으로 ‘아도나이’라는 왕자를 깊이 사랑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신부가,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꼭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긴 채 떠난 왕자를 기다린다. 왕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심부름꾼을 에클레시아에게 붙이고, 그녀는 우리를 구원할 왕자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한다. 이 에클레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천을, 아도나이 왕자는 예수님을, 왕자가 붙여준 심부름꾼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었다. 에클레시아와 파라클레토스는 일곱 교회(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있는 도시마다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행길을 떠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유혹, 절망, 슬픔 등, 마치 이게 나의, 우리의 좁은 길을 보는 거 같아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단순히 ‘일곱 교회 중에 나는 칭찬받는 서머나나 빌라델비아교회일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을 회개하고 매일 매일의 삶이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나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겠다고 느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좋은 교회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교회’라고 하셨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성령님을 모신 내 자신이 곧 교회다. 교회의 몸 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날 그 시에 칭찬받는 성도(교회)가 될 것이다.

송현혜 성도
charisma0691@hanmail.net

